

# 인터넷 스타(網紅) 3.0 시대 중국 사이버 페미니즘 담론 - Papi醬의 경우를 중심으로

최재용\*

## 목 차

- I. 서론
- II. 연구 배경
- III. 중국 (사이버) 페미니즘의 역사와 Papi醬의 등장
- IV. Papi醬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사이버 페미니즘적 독해
- V. '위반'과 '봉합':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권력과 자본의 길들이기
- VI. 결론

## 한글초록

이 글은 중국의 유명한 '왕홍', 즉 인터넷 스타인 Papi醬을 중국의 사이버 페미니즘의 맥락 하에 두고 분석하려 한다.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으로 인해, 여성들은 예전의 젠더 억압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다나 해러웨이나 새디 플랜트 등의 여러 학자들이 이런 가상공간 속의 페미니즘, 즉 사이버 페미니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이론들을 내놓았다. Papi醬은 이런 사이버 페미니즘이

---

\* 명지대학교

중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Papi醬이 발표한 수많은 동영상들에서 그녀는 사회적, 성적 억압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입장을 유쾌한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진화된 성차별’(enlightened sexism)의 혐의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국 사이버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사이버 페미니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와 시장의 가부장적 권력은 그녀의 ‘위반’을 자꾸만 ‘봉합’하고 길들이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인터넷 스타, 파피장, 사이버페미니즘, 진화된 성차별, 다나 해러웨이, 새디 플랜트

## I.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 중 하나인데, 인터넷이 생겨난 이후로 수많은 새로운 유형의 스타와 유명인이 인터넷을 통해 출현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탄생한 유명인을 ‘네트워크 인기인(网络红人)’이라 부르고 보통 ‘왕홍(网红)’이라 약칭한다. 네트워크 유명인(이하 ‘인터넷 스타’)은 때로는 스스로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 장의 사진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犀利哥’<sup>1)</sup>나 ‘神仙妹妹’<sup>2)</sup>), 때로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고 생산하는 콘텐츠가 네티즌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탄생하기도 한다. 특히 자타 공인의 2016년 최고의 인터넷 스타인 Papi醬의 경우, 스스로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다루어질 정도가 되었다. Papi醬을 전통적 의미의 지식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녀는 이전의 어떤 지식인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지식인’이라는 어휘가 점점 희화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Papi醬과 같은 네트워크 유명인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천만, 수억 명에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21세기의 미디어 환경 하에서 지식 및 담론의 생산/유통을 사고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훈련된 전문가들이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의 정보 처리 및 유통 능력이 극대화된 오늘날 이런 전통적인 지식 개념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본고는 이런 미디어 환경과 사이버스페이스의 대두를 배경으로 하여, Papi醬이라는 대표적인 인터넷 스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현재 중국의 특정 담론을 추적하려 한다. 그 특정 담론이란 바로 사이버 페미니즘인데, Papi醬을 페미니스트라고 한정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그녀의 발언 중 상당수는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적 고정관념을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가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반대합니다”라는 메

1) 우연히 찍힌 사진 속 거지의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犀利哥’라는 별명이 붙고 화제가 되었다. ‘犀利’는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뜻이고 ‘哥’는 형, 오빠를 뜻한다.

2) 마찬가지로 몇 장의 사진 속 여성의 외모가 뛰어나고 분위기가 신비로워 ‘神仙妹妹’라는 별명이 붙고 화제가 되었다. ‘神仙’은 말 그대로 신선이고, ‘妹妹’는 사전적 의미로는 여동생을 뜻하나 인터넷에서는 흔히 젊은 여성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된다.

3) 전경란,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지식과 지식 생산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2014), pp. 445-447.

시지를 던질 때<sup>4)</sup>,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사회적 억압을 폭로하고 조롱할 때, 그녀는 과거의 수많은 페미니스트 지식인이 책과 논문을 통해 그러했듯이, 1인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향해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무수히 복제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고, 나아가 신문 방송 등 기타 미디어에 의해 포착되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이버 페미니즘 담론 행위로 보고,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II. 연구 배경

아래에서는 중국 ‘인터넷 스타’의 역사와 Papi醬의 등장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Papi醬 및 인터넷 스타에 대해 언론과 학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1. ‘인터넷 스타’의 역사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국가 도메인인 ‘.cn’을 부여받고 진정으로 국제적 네트워크인 인터넷 세

4) “你听说过这些话吗?” <https://www.youtube.com/watch?v=inDwXZ2uEso&t=2s>  
Papi醬의 동영상은 대부분 중국의 SNS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시간이 오래 된 경우, 검열 삭제된 경우, 해외에서 접속이 힘든 경우 등 검색 및 열람이 어려운 것이 많다.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삭제된 동영상도 다 검색이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하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영상 출처는 모두 유튜브의 공식 채널로 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gHXsynhD8GxbFcNIPEn-w>)

계의 일원이 된 것은 1994년에 이르러서이다.<sup>5)</sup> 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은 주로 대학생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2016년에 이르러서는 CNNIC 통계 기준으로 사용자가 7억 명을 넘어섰고, 현재 중국어는 인터넷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sup>6)</sup>

인터넷 스타의 역사와 분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袁建勝은 질적인 속성에 따라 인터넷 스타를 엘리트(精英化) 시기와 대중화(大众化) 시기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 시기는 문자 텍스트와 그 생산자인 작가 및 작품을 중심으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였던 시기이며, 대표적인 인터넷 스타로는 유명 인터넷 소설가인 痞子蔡, 安妮宝贝 등을 꼽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블로거 木子美와 엽기 사진으로 유명한 芙蓉姐姐, 미녀 스타 神仙妹妹 등으로 대표되는 대중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사진, 이미지 등과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핵심이 되었다.<sup>7)</sup> 엘리트와 대중화라고 구분한 것은 첫 번째 시기에 등장하였던 인터넷 스타들은 인터넷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일종의 새로운 지식인, 즉 엘리트로 기능하였던 반면, 대중화 시기의 스타들은 주동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일종의 상품으로서 소비되는 측면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비교적 초기의 인터넷 스타의 등장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스타들의 특징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진남과 김창경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첫째 문학창작시대의 스

5) 欧阳友权, 『网络文学发展史』(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8), pp. 351-352.

6)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7) 袁建勝, 『从“轻舞飞扬”到“神仙妹妹”: 中国网络文化发展第一个十年中的女性形象塑造』(厦门大学 硕士学位论文, 2007).

타, 둘째 사진과 문학창작 시대의 스타, 셋째, 비디오 시대의 인터넷 스타이다.<sup>8)</sup> 袁建勝이 말한 대중화 시기를 다시 사진과 비디오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이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구분법이다. 다만 최근의 기술 발달 및 인터넷 플랫폼의 변화를 사진과 동영상(비디오)라는 단순한 구분만으로 포착하는 것은 역시 무리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고화질, 고품질의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여 광범위하게 유포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중과 소통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마련된 최근 몇 년 간의 상황은 다시 한 차례 질적인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현재 인터넷 스타가 3.0 세대에 속한다는 관점을 채택할 것이다. 1.0, 2.0, 3.0 등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web 2.0이나 3.0이라는 구분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최신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网红 3.0’이라는 구분은 2015-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Papi酱이라는 걸출한 인터넷 스타가 각광을 받고, 그 트래픽(traffic) 유발 능력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이다. 대체로 1.0세대는 앞서 언급했던 安妮宝贝나 블로그 스타 韩寒 등의 ‘텍스트 인터넷 스타文字网红’를 말하고, 2.0세대는 芙蓉姐姐나 凤姐 등 일종의 문화적 상품으로 소비되었던 세대를 말한다.<sup>9)</sup> 3.0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달리 피동적인 소비자의 입장이

8) 진남·김창경, “인터넷스타 현상을 통한 중국 인터넷 문화연구 - 네티즌의 논평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1집(2009), p. 353.

9) 芙蓉姐姐 등을 1세대로 놓고, 2 세대를 블로그 시기의 미녀 스타가 주도했던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Papi酱을 3세대로 본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일치한다.

아니라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상품화, 브랜드화하여 거대한 경제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단순한 우연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스타가 되었던 이전의 경우와 다르게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표현”으로 “팬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공명”<sup>10)</sup>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요컨대 텍스트를 통해 스타가 되었던 것이 엘리트주의적인 1.0세대였다고 한다면 2세대는 (비자발적이고 비자각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졌던 시기, 3.0세대는 자발적인 상품화와 동시에 비디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의식적으로 생산해 내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Papi醬은 바로 이 3.0세대의 대표주자이다.

## 2. Papi醬의 등장과 보도 및 연구 현황

Papi醬은 1987년 상하이 출생인 姜逸磊가 인터넷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이다. Papi醬은 때로는 자연인 姜逸磊과 겹치지만, 오직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인터넷 스타, 가상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녀는 중앙희극학원(中央戏剧学院) 감독학과(导演系)를 졸업하였고 얼마 전에는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스타가 되기 이전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더빙이나 각종 보조 업무를 맡아 방송과 관련된 경험 및 기술을 닦았다.<sup>11)</sup> Papi醬이라는 ID는 평소 좋아하던 ‘papi’라는 아이디를 누군가 쓰고 있어서 본인의 성(姜)과 해음을 이루는 ‘장醬’을 papi에 덧붙여 만든 것이라고 한

10) “网红经济的春天来了吗”, 经济日报 2016년 4월 5일자 기사.

<http://theory.people.com.cn/n1/2016/0405/c49154-28250297.html>

11) 바이두(百度)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http://baike.baidu.com/item/papi%E9%85%B1/19324554?fr=aladdin>

다.<sup>12)</sup>

하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인데, 중국판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는 웨이보([www.weibo.com](http://www.weibo.com))를 통해 dapapi라는 ID로 업로드한 짧은 동영상 〈남성 생존 법칙(男性生存法则)〉 시리즈, 〈대만 사람의 동북사투리(台湾人说东北话)〉 등이 폭발적인 조회수와 반응을 기록하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인터넷 스타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 그녀의 웨이보 팬 수는 2200만 명 이상이며, 웨이보의 메인 동영상은 7927만의 조회수와 6만8천여개의 댓글, 52만여 회의 ‘좋아요’(赞)를 기록 중이다.<sup>13)</sup> 웨이보 이외에도 youtube에 채널을 운영 중이며 2016년 7월에는 一直播, 美拍 등 여러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의 인기는 곧바로 큰 액수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2016년 3월 真格基金 등 4개 투자사가 1,200만 위안을 투자하였고 5월에는 동영상에 삽입할 광고를 경매에 부쳐 2,200만 위안이라는 최종 낙찰가를 달성, 화제가 되었다.<sup>14)</sup> 곧 그녀는 인터넷에서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의 주목도 끌게 되었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그녀를 ‘넘버 원 인터넷 스타(第一网红)’로 호칭하며 관련 뉴스를 쏟아내게 된다. 2017년 4월 현재 바이두에서 검색되는 관련 뉴스의 수는 25만 편에 육박한다.<sup>15)</sup>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그녀를 포함한 인터넷 스타(网络红人)와 관련된 연구가 2016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2) 현대 중국어에서 姜과 酱은 발음이 같다. 자세한 내용은 “专访Papi酱：我还没出道，没！有！推！手！”(腾讯娱乐 2016년 2월 25일자 인터뷰)의 내용을 참조. <http://ent.qq.com/a/20160225/037457.htm>

13) 2017년 4월 현재.

14) 한중미디어 연구소의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hina-hao>

15) <http://news.baidu.com/ns?cl=2&m=20&tn=news&word=papi%E9%85%B1>



2010-2015년 사이 매년 200여 편 근처에 불과하던 인터넷 스타 관련 연구 성과(CNKI, 주제어 검색 기준)가 2016년에는 479편으로 늘어났으며 직접 Papi醬과 관련된 연구도 2016년 한 해에만 199편이 발표되었다. 다만 아직도 진행 중인 최근의 현상이고 관심도 학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가십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학위논문 등)보다는 단순 보도나 정리 차원의 성과가 대다수이다.<sup>16)</sup> 특히 Papi醬이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한 2015년 이후의 연구는 절대다수가 경제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10년~2016년까지 ‘网络红人’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하여 얻어진 논문들<sup>17)</sup> 중 다운로드 수가 높은 순위로 선정한 50개의 연구 성과를 분석한 것인데, 제목에 ‘경제(红经)’, ‘판매(营销)’, ‘상업모델(商业模式)’, ‘브랜드(品牌)’ 등 경제 관련 어휘가 포함된 자료의 수가 2016년 이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0편 중 20편이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미디어의 측면이나 대중심리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다.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관련 논문 편수	1편	1편	0편	3편	2편	1편	12편

요컨대 인터넷 스타와 Papi醬, 특히 3.0세대의 인터넷 스타들은 주로 경제적인 분석틀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문학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접근이나 미디어 연구도 분명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작업이겠지만, 본고에서는 각도를 조

16) 다만 범위를 Papi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타로 넓힐 경우 상당한 학술적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그 중에는 페미니즘 및 젠더 문제와 관련된 것도 적지 않다.

17) 검색은 cnki.net에서 2017년 3월 28일자에 실시하였다.

금 달리 하여 Papi醬을 중국 페미니즘 담론의 역사 속에 두고 관찰하려 한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가 생산하는 콘텐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반응은 중국의 (사이버) 페미니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 III. 중국 (사이버) 페미니즘의 역사와 Papi醬의 등장

본격적으로 Papi醬과 관련된 페미니즘 담론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페미니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이버 페미니즘 개념의 등장과 그 비판적 수용은 Papi醬을 역사적 맥락 속에 두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지면관계상 20세기 이후의 상황만을 간략히 다루도록 한다.

#### 1. 중국 페미니즘의 역사

##### 1) 사회주의 혁명기 : 텅 빈 혁명 기호로서의 ‘그녀들’

이영구는 20세기 중국 성 담론의 역사를 ‘전통적 젠더’에서 ‘사회적 섹스’, 그리고 마침내 ‘현대적 젠더’로 변화해 가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sup>18)</sup> 간단히 말해 ‘전통적 젠더’란 남존여비의 유교적 젠더 관념에 의거한 성 역할이 지배적이었던 단계를, 그리고 ‘사회적 섹스’란 오로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별만 존재할 뿐 철저히

18) 이영구, “20세기 중국 페미니즘 문학의 섹스와 젠더”, 『세계문학비교연구』, 6권 0호(2002), p. 86쪽. 이영구의 구분은 사회주의 혁명기 중국 성 담론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2002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젠더적 특징이 거세되었던 단계를, 마지막으로 ‘현대적 젠더’는 여성성을 새롭게 발굴하여 페미니즘적 젠더 질서를 꿈꾸는 단계를 뜻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기’가 바로 ‘사회적 섹스’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지는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여성해방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최초의 연도는 1921년 공산당 창당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4의 엘리트주의적 여성해방 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부터 여성해방, 남녀평등을 중요한 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1922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2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결의(关于妇女运动的决议)」를 내놓아 보편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여성의 이익을 위해 분투할 것을 다짐하였다.<sup>19)</sup>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여성노동력 동원과 정신교육 등을 목표로 계속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1950년대에는 신 혼인법이 시행되었고<sup>20)</sup> 毛泽东이 직접 생산에서 남녀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1)</sup>

하지만 이 시기 중국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간적 측면에서의 해방을 목표로 했다고보다는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의 건설단계에서 필요하고도 절실한 여성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sup>22)</sup>이었음은 분명하다. 이영구가 이 시기의 특징을 ‘사회적 섹스’로 지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국가가 여성의 특수성이나 남성

19) 일본 중국여성사연구회 지음, 이양자 등 옮김, 『사료로 보는 중국여성사 100년』 (한울, 2010), pp. 118-119쪽.

20) 김형란, “样板戏의 ‘그녀들’, 그리고 중국의 페미니즘”, 『중국현대문학』, 70호 (2014), pp. 87-88.

21) 일본 중국여성사연구회 지음, 앞의 책, p. 277.

22) 김형란, 앞의 글, p. 88.

과의 젠더적 차이를 없앴으로써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주체를 생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모범극(样板戏)의 여성 영웅이다. 모범극의 여성 주인공들은 가족관계나 남녀 간의 애정을 삭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젠더가 철저히 제거된다. 즉 그들은 “남자는 아니지만 남자보다 낫고, 여자 옷을 입고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별을 뛰어넘어 혁명을 위한 인물로만 존재”<sup>23)</sup>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주의 혁명기의 페미니즘 내지 여성해방 운동은 여성을 기존의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젠더 질서로부터 해방시키고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정치적, 혁명적 언어에 경도된 나머지 진정한 여성의 해방과 양성평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개혁개방시기 :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새로운 젠더 역할이 대두됨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毛泽东의 사망과 사인방의 체포로 반환점을 찍은 후 사실상 그 폭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후를 이어 邓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었고 80-90년대에 걸쳐 서구 페미니즘 사조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많은 여성 작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 차이를 여성 자신의 시각에서 고민하고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젠더 역할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sup>24)</sup> 특히 90년대 “가장 영향력이 컸던 문학 담론의 하나”<sup>25)</sup>라고 일컬어지는 여성문학의 약진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林白나 陈染, 王安忆 등의 작품은 이 시기에 기존의 남

23) 위의 글, p. 97.

24) 이영구, 앞의 글, p. 97.

25) 孟繁华, 『中国当代文学通论』(辽宁人民出版社, 2009), p. 347.

성 문학에 묻혀 있던 여성의 목소리를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를 ‘현대적 젠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기의 ‘사회적 섹스’의 공허함을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 여성의 삶은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기에 비해 더 나빠진 측면도 있는데, 바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력 때문이었다. 시장 시스템의 도입은 “남녀평등이라는 간판하에 보호되어온 여성노동자가 가혹한 경쟁에 드러나게 되어 탈락의 대상”<sup>26)</sup>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주의 혁명기에도 평등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지워진 가운데, 중국 여성은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우선 퇴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진정한 여성 주체를 세우려는 노력은 강렬한 시장의 유흥과 맞서야 했고, 젠더는 또다시 가부장적 질서에 굴복하거나(妇女回家论 등의 경우) 노골적인 상품화의 위협을 겪게 되었다. 수많은 여성은 남성보다 열악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에 만족하여야 했으며, 여전히 남성에 비해 훨씬 긴 가사노동에 종사하여야만 했고, 94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경쟁적으로 광고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고 여성에게 또 다른 굴레를 씌우기 시작했다.

### 3)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 페미니즘의 대두

앞서 설명했다시피 90년대 중후반 이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보급되었다. 1998년 蔡智恒(앞서 언급했던 痞子蔡의 본명)등의 1.0세대 인터넷 스타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로 중국의 사이버스페이스는

26) 일본 중국여성사연구회 지음, 앞의 책, p. 321.

여성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활동 공간이 되어 주었다. 물론 이 시기도 크게 보자면 개혁개방시기에 속하지만, 인터넷(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페미니즘 담론은 그 이전 단계와는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은 자신의 성별과 실제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므로 여성이 활동하기에 심리적인 부담이 적었다는 점, 둘째, 90년대의 ‘진지한’ 페미니즘과는 다르게 21세기 인터넷 중심의 페미니즘 및 성 담론은 보다 가볍고, 경쾌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 셋째, 누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탈권위적, 탈중심적인 교류가 가능해져서 여성이 가부장적 권력의 억압을 피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이후 서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흔히 다나 해러웨이(Dana J. Haraway)와 새디 플랜트(Sadie Plant) 두 사람을 꼽는다. 다나 해러웨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인류는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이보그(cyborg)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공간은 젠더의 이분법이 해체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7)</sup> 사이보그는 인간도 기계도 아닌 새로운 존재이며, 자아/타자, 정신/신체, 문화/자연 등의 이분법적 시스템 자체를 해체해 버릴 가능성을 가진다. 해러웨이는 여성성을 특권화하고 여성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 본질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 구조 그 자체를 해체하고 초월해 버리는 방법을 택한다.

새디 플랜트의 접근법은 사뭇 다른데, 그녀는 사이버 공간 자체가 여성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사이버 공간의 기술 구조 자체

27) 이채리, “사이버 공간의 페미니즘적 의미”, 『과학철학』, 10호(2007), p. 76.

가 반 가부장적인, 페미니즘적 구조”를 가졌다는 근거로 플랜트는 첫째, 그것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는 점, 둘째, ‘연결’에 기초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셋째, ‘접촉’이라는 여성적 감각을 위주로 한다는 점, 넷째, 비서열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한다.<sup>28)</sup> 그녀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온 기술 분야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기술에 관한 진정한 여성사(her-story)를 짜 나간다.”<sup>29)</sup> 반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에 속하는 해러웨이와는 달리 새디 플랜트는 여성의 특징이 남성적인 것보다 우세하다고 주장하는 본질주의 계통의 페미니즘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90년대에서 21세기 초에 걸쳐 전개된 것으로, 그 이후 상당한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로도 너무 유토피아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都嵐嵐은 사이버 페미니즘의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사이버페미니즘은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물질적 조건 하에서만 가능함을 무시하여, 제 3세계 등 빈곤 지역 여성을 배제한다. 둘째, 유토피아주의에 빠져서 이미 여성 해방이 실현되었고 여성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다고 착각한다. 셋째, 해러웨이와 플랜트의 관점은 각각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해러웨이는 기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기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여성을 배제하였다. 플랜트의 이론은 남성 중심의 기술관을 단순히 여성 중심의 기술관으로 뒤집은 것일 뿐이므로 남녀의 이원대립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였다.<sup>30)</sup> 이채리 역시 사이버페미니즘의 여러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의의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젠더를 선택

28) 위의 글, pp. 84-87.

29) 알렉스 갤러웨이, “사이버 페미니즘에 관한 한 보고 : 새디 플랜트와 VNS 매트릭스의 관계”, 『문화과학』, 27호(2001), p. 281.

30) 都嵐嵐, “简论赛博女性主义”, 『世界文学评论』, 171(2008) pp. 239-240.

하거나 숨기는 행동을 통해 “젠더 규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젠더 이분법의 편견을 체험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sup>31)</sup> 요컨대 해리웨이와 플랜트의 이론은 사이버페미니즘의 대표 이론으로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즘 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

인터넷은 페미니즘을 실현시켜 줄 이론적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 가능성은 계속해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및 사회 구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은 이런 실제 권력과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들은 이런 맥락에서 몹시 중요하다. 페이스북, 트위터, 웨이보 등 세계 각지의 SNS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건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김현영은 “2015년을 전후해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조직된 새로운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기존의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수행했던 규범들을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들”, 즉 “하고 싶지 않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그들은 열등한 직종과 낮은 임금, 가사와 육아 노동의 불평등을 전혀 견디지 못하게 된 여성들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여성들의 목소리가 SNS나 1인방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Papi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2. 사이버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본 Papi醬의 등장

Papi醬의 활동은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준다.

31) 이채리, 앞의 글, pp. 99-100.

32) 권김현영 등, 『대한민국 넷페미史』(나무연필, 2017), p. 76.



그녀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종류의 사이버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그녀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려 한다.

Papi醬의 활동은 해러웨이가 말한 사이보그로서의 측면과 새디 플랜트가 강조하는 기술적인 측면 모두와 관련이 있다. 우선 사이보그로서의 측면을 보자. 해러웨이는 사이보그가 “기술과학적 매트릭스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며,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기계와 유기적인 몸...간의 내파력 때문에 생긴 충격으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3)</sup> 언뜻 보기에 이런 심원한 비유로서의 사이보그 개념과 Papi醬은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연인으로서의 姜逸磊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Papi醬’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이보그가 페미니즘과 연결되는 이유는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할 기술적, 비유적 계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데, 필자는 Papi醬의 많은 영상에서 이런 이분법이 초월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편집된 빠른 속도의 화면 전환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여성으로 나타나다가 다른 순간 남성의 역할을 연기한다.<sup>34)</sup> 현실 속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젠더 정체성이 변화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Papi醬은 자연인으로서의 姜逸磊이 디지털 기술(촬영, 편집, 음성변조, 인터넷을 통한 전파...)과 결합한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사이보그가 된다.

또 Papi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음성변조인데, 일상생활의 발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높은 톤으로 재생되는 그녀의 목소

33) 다나 J. 해러웨이 지음, 민경숙 옮김, 『검은 목격자』(갈무리, 2007), p. 60.

34) 일종의 ‘판관反串’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4장 4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리는 해러웨이와 플랜트의 이론 양쪽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자연인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변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이보그이며, 이런 음성변조 ‘기술’을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이버 공간 및 기술의 여성성을 주장하는 플랜트의 이론과 닿아 있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특히 선진적이고 복잡한 테크놀로지는 지금껏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 미디어 일반이 가부장적 남성 권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여성이 남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그리 드문 것이 아니었다.<sup>35)</sup> 하지만 Papi醬은 자신의 업계 경험을 사용하여 이런 ‘기술’을 자유자재로 직접 구사한다. 촬영, 음성변조, 편집, 자막, 업로드 등 모든 과정을 그녀는 직접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36)</sup> 또 Papi醬의 활동은 플랜트가 강조하는 복잡성, 연결, 접촉, 비서열성 등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api醬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웨이보는 바로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연결과 접촉에 의거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슈퍼스타와 직접 친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Papi醬의 활동은 사이버 페미니즘에서 제시하였던 가능성이 특정한 형태로 현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의 유토피아적 예측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사이보그로서 Papi醬은 남녀의 역할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진정으로 젠더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녀의 캐치프레

35) 미셸 마틴,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술? 자본순환의 수단인 커뮤니케이션”, 아일린 미헨 등 역음, 『섹스와 돈: 페미니즘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 67.

36) 腾讯娱乐, 앞의 인터뷰 참조.

이즈인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여자”<sup>37)</sup>야말로 이 점을 아이러니하게 보여 준다. 물론 芙蓉姐姐 이후 스스로의 외모를 망가트림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인터넷 스타들이 흔히 구사하는 전략이 되었으며, Papi酱이 자신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중층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건 간에 그녀가 결국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워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사이보그 역시 젠더 질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형수술한 여성 신체, 그리고 포토샵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작된 이미지는 분명 사이보그이지만, 이런 사이보그화는 젠더 이분법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디 플랜트의 사이버페미니즘 역시 이상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플랜트는 여성이 ‘연결’과 ‘접촉’을 중시하며 사이버스페이스가 바로 이러한 여성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sup>38)</sup> 실제로 인터넷 스타, 특히 Papi酱처럼 폭발적인 인기와 추천, 공유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명해진 스타의 경우는 새디 플랜트의 주장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채리가 지적했듯이 인터넷 역시 일종의 도구이며, “사이버 공간의 도구적인 여성성은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힘을 제어하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도구로서 가부장적 활동을 돕는 기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sup>39)</sup>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어 주는 그런 이상적인 네트워크는 적어도 현실 속 중국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인터넷은 가부장적 억압이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하며(검열, 플레이밍/트롤링<sup>40)</sup>

37) “我是Papi酱, 集美貌与才华于一身的女子”라는 구호는 그녀의 거의 모든 영상 첫머리에 등장한다.

38) 이채리, 앞의 글, p. 86.

39) 위의 글, p. 93.

40) 플레이밍(flamming)과 트롤링(trolling)은 모두 인터넷상에서 의사소통을 거부

등), 여성적인 ‘접촉’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시각적으로 대상화함으로써 오히려 여성 신체에 대한 남성적 시각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실제로 Papi醬 역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어야만 하였으며 국가권력에 의한, 그리고 자본에 의한 억압을 당해야만 했다.<sup>41)</sup> 그녀의 인기는 끊임없이 수치화되어 다른 인터넷 스타들과 ‘위계적’으로 비교당해야만 했다(아래 그림 1 참조).

排名	姓名	关注量
NO.1	安妮宝贝	1233万
NO.2	芙蓉姐姐	1116万
NO.3	王思聪	1077万
NO.4	郭美美	909万
NO.5	凤姐	847万
NO.6	桐华	840万
NO.7	奶茶妹妹	543万
NO.8	犀利哥	364万
NO.9	papi酱	280万
NO.10	王尼玛	244万

[그림 13] 인터넷 스타 순위

(출처 : 2345软件资讯, 2016년 4월 8일)

이처럼 Papi醬의 활동은 사이버페미니즘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은 하였으나 결코 선구적 이론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유토피아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다만 한 여성이 수천만 단위의 대중에게 직접 스

하고 무례하고 무의미한 말을 일삼는 행동을 뜻한다. 대부분 남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권김현영 등, 앞의 책, pp. 57-60.

41)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시 상술하도록 한다.

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태이다. 2016년 중국의 관영 신문인 인민일보의 발행량은 채 300만 부에 못 미치고 인민일보 공식 웨이보의 팬은 1500만 수준인데, 이는 Papi醬이 기록하고 있는 수치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단순히 수치만 보자면 심지어 Papi醬이라는 한 인터넷 스타의 영향력이 국가 관영 미디어보다 크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Papi醬은 이런 거대한 영향력을 사용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또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생산한 영상과 그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 IV. Papi醬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사이버 페미니즘적 독해

##### 1. 텍스트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Papi醬의 활동은 현대 중국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여기서는 앞서 진행한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 실제 Papi醬이 제작한 동영상의 내용에 어떤 페미니즘적 요소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Papi醬은 성차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한 바 있고, 이는 가장 두드러지는 페미니즘 관련 주제라 하겠다. 2016년 부녀절(3월 8일)에 업로드한 동영상 〈일체의 성차별에 반대합니다(反对一切性别歧视)〉<sup>42)</sup>에서 Papi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생활하다가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42) 유튜브 전용 채널에는 제목이 “你听到过这些话吗?”로 바뀌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nDwXZ2uEso&t=13s>

“아이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남자만 뽑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올해 여성을 뽑지 않습니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서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섬세한 사람이 필요하니, 남자들은 해낼 수 없어요.”  
 ...(중략)...  
 “다 큰 남자애가 분홍색을 좋아하다니!”  
 “여자애들은 치마를 좀 더 자주 입도록 해.”  
 ...(중략)...  
 “여자는 아무래도 머리가 길어야 여자 같지.”<sup>43)</sup>

특별히 이론적으로 심오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겪게 되는 성차별적 발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여성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겪게 되는 성차별 역시 다루고 있다는 것(섬세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색깔에 대한 편견 등)이다.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반응도 무척 긍정적이다. ‘Yixin Zhang’은 “정말 모든 성차별에 반대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취미, 가정생활 등에서 어떤 것은 남자가 하고 어떤 것은 여자가 한다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합니다! Papi醬을 지지합니다(就是应该反对所有以性别歧视, 给任何职业爱好和家庭活动甄别哪些是男的做得哪些是女的做得. 支持支持! 支持Papi醬)”라고 말하고 있으며, ‘yeelok yam’, ‘Pauline Chen’ 등 수많은 네티즌이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sup>44)</sup>

43)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我们在平时生活中经常会听到这样一些话。// 哟, 我们现在这部门只招男的。// 我们单位今年不找女孩。// 这个工作太累了, 不适合女性。// 这个事情需要细心的人, 你们男的干不了。// 一个大男人惊人喜欢粉红色。// 女孩子就多穿穿裙子嘛。// 女人还是要长头发才像是个女人。” <https://www.youtube.com/watch?v=inDwXZ2uEso>

44) 언급한 댓글은 모두 웨이보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달린 것이다.

Papi醬은 이밖에도 <여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女人真是不好做)><sup>45)</sup>에서 여자로 살면서 겪게 되는 외모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고발하기도 하고, <너는 왜 항상 모든 일에 불만이니?(为什么你总对什么都不满意?)><sup>46)</sup>에서 여성스러운 복장과 육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받게 되는 억압을 조롱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여성은 가부장적 압력에 굴복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비난받게 되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재치 있게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가부장제가 남성과 여성 개인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척이라는 시스템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친척들 : 듣고 싶은 말 다 여기 있어요!(某些讨人厌的亲戚 : 你们要听的话都在这里了!)><sup>47)</sup>라는 동영상에서 그녀는 젊은 여성이 친척들에게서 받게 되는 압력과 그에 대한 반감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낸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결혼은 했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등의 무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삼촌의 재미없는 반복적인 농담에도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식사와 사소한 일까지 챙길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의 처지를 보여 준다.

이처럼 Papi醬은 여성(과 남성)이 왜곡된 젠더 관념 때문에 받게 되는 억압을 솔직히 고발하고 가부장제를 조롱하는 텍스트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Papi醬은 권김현영이 말하는 “할 수 없는 존재들”, 즉 전통적 젠더 역할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수행할 수도 없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5) <https://www.youtube.com/watch?v=PTgxw8az67A>

46) <https://www.youtube.com/watch?v=OjKPHCXyQa4>

47) <https://www.youtube.com/watch?v=vBWOfjYDLv8>

## 2. 텍스트에 나타난 반(反)페미니즘적 요소

하지만 Papi醬의 텍스트가 항상 페미니즘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심지어는 페미니즘을 위협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왜 남자들은 이렇게 간단한 걸 이해 못 하지? [남성 생존 법칙] (为什么这么简单的事情, 男人都搞不明白?! 【男性生存法则】)><sup>48)</sup>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을 다루고 있으며, 엄청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그녀의 대표적 동영상이다.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흥미롭게도 페미니즘과 여성혐오(misogyny)가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페미니즘적 발언으로 취급될 수 있는 내용을 보자.

“가슴은 그냥 고기 두 덩어리일 뿐이잖아?”

“여자 속옷을 다 남자들 감상시켜 주려고 사는 건 아니야.”

“여자가 다 스타킹 하이힐 신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sup>49)</sup>

이상의 발언은 위에서 다루었던 페미니즘적 텍스트와 같은 맥락에 있으며, 여성이 스스로의 신체와 복장, 행동에 있어서 선택권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발언은 다소 맥락이 다르다.

① “저 여자 완전 성형수술한 거잖아, 남자들은 딱 보면 모르나?”

② “저 여자 완전 순진한 척 하는 거잖아. 남자들은 딱 보면 모르나?”

③ “왜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시시비비를 따지려 들어? 나는 시시

48) <https://www.youtube.com/watch?v=IFfNv6IvQSg>

49) 위 동영상. 원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那不就是两坨肉么?// 不是所有内衣都是买来给男人欣赏的, 好吗?// 不是每一个女人都喜欢穿丝袜高跟鞋的。”



비비 따지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야.”<sup>50)</sup>

①과 ②는 성형수술한 여성, 그리고 ‘내숭을 떠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관련이 있다. 남성들은 이런 현상을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여성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자칫 널리 알려진 성차별적 주장인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쉽다. 화면 속의 Papi醬은 성형수술을 하였거나 순진한 척 하는, 혹은 포토샵으로 꾸민 여성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남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여성이 서로를 질투한다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③의 경우는 좀 더 미묘하다. 한편으로는 흔한 여성혐오의 일종인 맨스플레인(mansplain)<sup>51)</sup>에 대한 비난으로 읽을 수 있다. 당사자인 여성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대신 문제와 해결책 등을 설명해 주는 상황에 대한 반감을 비꼬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을 반이성적인 존재로 국한시키는 발언으로 읽을 수도 있다. 특히 이성적인 설명(道理)과 해결책을 “듣고 싶지 않다不想听”는 말은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위험은 실제로 확인되는데, 이 동영상과 같은 시리즈에 속하는 〈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남성 생존 법칙] (女人觉得理所当然, 男人却死活搞不明白的事【男性生存法则】)〉<sup>52)</sup>의 댓글을 살펴보자. ‘雨林’

50) 위 동영상. 원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那个女人明显是整容的, 他们看得出来吗? // 那个女人明显是装清纯的, 他们看得出来吗? // 为什么要在我难过的时候和我讲道理? 我不想听道理!”

51) 남성(man)과 설명(explain)의 합성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레베카 솔닛 지음, 김명남 옮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 2015).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해당 동영상 아래에 “여자한테는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다(女人不用讲道理)”라고 말하고 있으며, ‘羊’은 “맞아 맞아, 시시비비를 따지는 여자는 거의 멸종했지(没错没错, 讲道理的女生应该几乎绝种了吧)”고 적었다.

이밖에 〈게임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游戏寡妇”是一种怎样的体验)〉<sup>52)</sup>에서는 게임에 빠진 ‘남성’이 게임에 별 관심이 없는 ‘여성’을 무시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 역시 고정된 젠더 역할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 실제 게이머의 성비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남성들은 게임을 남성 문화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sup>54)</sup> 이 영상 역시 이런 고정관념의 재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Papi醬이 동영상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사이보그적 젠더 역할 바꾸기 때문에 동영상 내의 젠더 고정관념은 아이러니함을 갖게 된다.

이처럼 Papi醬의 영상은 페미니즘을 고취함과 동시에 페미니즘을 저해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작은 가슴에 대해 농담할 때(“내가 가슴이 평평하지 않다면 어찌 천하를 평정할 것인가!”<sup>55)</sup>), 한편으로 그녀는 남성의 대상화하는

52) <https://www.youtube.com/watch?v=FTR-V0PQiAs>

53) <https://www.youtube.com/watch?v=aHRNygtnA04>

54) 여성을 주제로 삼은 게임에 대한 기사에서조차 이런 오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요 소비자들이 남성 게이머인 시장 특성상 성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은 문제입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여성이 만든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지혜, 「여자가 여자를 위해 만든 게임 ‘텐더라이언’」, 게임메카 2012년 5월 17일자 기사 참조.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100730>

55) 인터넷 유행어인 ‘胸不平何以平天下’에서 나왔다. Papi醬은 종종 자신의 가슴이 작다는 사실을 자조적인 유머에 사용하곤 한다.

시선을 비웃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남성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Papi醬이 종종 텍스트의 소재로 삼는 아이돌이나 화장품, 명품백 등 후기자본주의 소비문화에 대한 무비판성<sup>56)</sup>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문화의 압력 속에서 여성의 신체는 물론 여성의 행동과 선택 역시 상품화되기 쉬운데, 이런 자본의 압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할 경우 여성은 아무리 자발적인 선택권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시금 성차별적 질서 속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 3. ‘진화된 성차별(enlightened sexism)’

앞서 중국 페미니즘의 역사를 간단히 다루면서 개혁개방이 가져온 양면성을 이야기하였다. 개혁개방의 성공이 가져온 물질적 번영, 서구 페미니즘 사조의 수입과 ‘빠링허우’ 이하 ‘신세대’들의 개성 추구,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자존감 강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중국의 페미니즘은 분명 큰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공식적인 의미에서는 공산당 지배하의 중국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일찍이 루쉰이 집을 나간 여성(노라)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권임을 갈파하였던 바, 이제 수많은 중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자신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성공과 여성의 권리 신장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차별에 핑계거리를 제공하였다. 수전 J. 더글러스는 이를 ‘진화된

56) 이런 경향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팬질을 할 것인가(没有钱怎么追星嘛)” 등의 동영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TxH7XU9zSc>

성차별(enlightened sexism)'이라 부른다. “진화된 성차별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 충분한 진보를 이룩했으니, 그리고 실제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었으니 이제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고정관념을 부활 시켜도 무방하며, 심지어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주장한다.”<sup>57)</sup>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성차별과 같은 것은 없으므로 여성들은 “각자의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을 외모를 가꾸고, 남자를 기분 좋게 하며, 섹시해지고, 다른 여자들과 경쟁하고, 쇼핑을 하는 데 할애해야”<sup>58)</sup>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화된 성차별이다. 이런 종류의 성차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기존의 페미니즘이나 젠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음울하고 촌스러우며 피해의식에 가득하고 시대에 뒤쳐”<sup>59)</sup>진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며, 실재하는 성차별을 재미있고 유쾌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 개념은 Papi醬의 경우에 거의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Papi醬은 자신의 여성성(가슴, 피부, 화장 등 외모 문제는 물론 쇼핑, 아이돌 추종, 연애평계에서 여성/남성으로서의 역할 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페미니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문화에서 바라는 종류의 여성성과 페미니즘이 완전한 화해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화된 성차별이다. Papi醬은 신랄한 농담의 형태로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조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희화화하고 후기 자본주의적 여성 소비자의 자리에 자신을 당당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결국 가부장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방해한다. 진화된 성차별은 미디어가 자신의 운영 원리인 가부장제적 질서에 대한 페미니즘적 공격을

57) 수전 J. 더글러스 지음, 이은경 옮김, 『배드 걸 굿 걸』(글항아리, 2010), p. 21.

58) 위의 책, p. 22.

59) 위의 책, p. 25.

무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Papi醬의 공격 중 일부는 분명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에게 왜 수많은 핸드백과 옷과 립스틱이 필요한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하는 그녀의 모습<sup>60)</sup>은 자본이 요구하는 여성의 자리(소비자로서의 자리)에 기꺼이 스스로를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이며, “패션, 화장법, 아기, 대인관계 등 과거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던 여성 위주의 지식을 종종 찬양하고 이러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주장”<sup>61)</sup>하는 진화된 성차별과 공모하게 될 위험이 있다.

중국에서 양성평등은 이미 실현되었는가? 노골적인 성차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공격적인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유행 지난 일이 되었는가? Papi醬의 존재는 중층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 준다. 여성이 Papi醬처럼 세상을 향해 ‘당돌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예전과 같은 봉건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Papi醬은 젠더 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동영상 올릴 때 모든 남성이나 여성이 그렇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싸움을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sup>62)</sup>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유쾌한 장난과 같은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해 보자면, 중국에서 페미니즘의 실현은 항

60) “왜 남자들은 이렇게 간단한 걸 이해 못 하지? [남성 생존 법칙] (为什么这么简单的事情, 男人都搞不明白?!【男性生存法则】)” <https://www.youtube.com/watch?v=IFfNv6lvQSg&t=28s>

61) 수전 J. 더글러스, 앞의 책, pp. 32-33.

62) 〈남성 생존법칙 2탄〉을 올리면서 Papi醬은 웨이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영상은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남성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 좋게 지나고,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시다. (本视频不代表所有女性, 不针对所有男性。请大家和谐相处, 共建美好社会).” <http://weibo.com/2714280233/D7kIXod0l?type=comment>

상 가부장 남성 권력의 '허락'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5.4시기도 마찬가지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상황도 毛泽东이라는 가부장적 인물로 상징되는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여성의 권리가 허락되었다. 이처럼 양성평등이 이미 과거에 선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급속하게 일어난 경제발전에 의해 개혁개방 초기의 여성 문제가 어느 정도 덮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Papi醬의 페미니즘 담론은 체제에 대한 정면공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농담과도 같은 현상으로 소비될 수 있게 되었다.

#### 4. 소결 : Papi醬을 위한 변명

그렇다면 Papi醬의 활동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api醬은 결코 이상적인 페미니즘 전사가 아니며, 심지어 상존하는 가부장적 시장경제 시스템과 역설적인 공모관계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추구하는 인터넷 스타로서, 그녀의 활동이 이상주의적 극단론으로 치닫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것이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Papi醬의 활동이 사이버 페미니즘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발언권과 기술에 대한 권한을 여성의 품으로 되찾아왔다. 예전에도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 권력이 지배하는 시스템과 끊임없이 대결해야만 했다. 편집자, 지도교수, PD, 감독은 대다수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남성 권력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TV의 예를 들어 보자면, 아일린 미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V는 전통적으로 남

성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즉 남성에 의존하고,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남성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또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사회(society)’가 남성을 먹거리(breadwinner)를 생산하는 주체(breadwinner)로 규정하는 한, 광고주, 방송사, 시청률 조사자는 그러한 사회적 규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sup>63)</sup>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 이 상황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제 여성은 더 이상 남성 편집자나 감독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제 여성이 가부장제를 조롱하고 자신의 젠더 역할을 거부하는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Papi酱은 음성변조나 빠른 편집, 대중과의 소통 능력 등 뛰어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과시하였고 더 이상 여성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Papi酱을 芙蓉姐姐나 神仙妹妹 등 과거의 여성 인터넷 스타와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명확해진다. 芙蓉姐姐는 자신의 외모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으로 스타가 되었고, 神仙妹妹나 奶茶妹<sup>64)</sup>는 남성 시선의 대상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스타가 되었다.<sup>65)</sup> 하지만 Papi酱은 당당하게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남성이 좋아할 만한 예쁘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거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서슴없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망가트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솔직한’ 모습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호응은 그녀의 발언권을 더욱 강화시켰다. 1인 미디어의 감독이자 배우이자 각

63) 아일린 미헨 지음, 김선남 등 옮김, “상품 수용자의 젠더화 — 비판적 미디어 연구, 페미니즘, 정치경제학”, 아일린 미헨 등 엮음, 앞의 책, p. 309.

64) ‘奶茶妹’는 ‘밀크티 아가씨’ 정도의 뜻을 갖는다. 밀크티와 함께 찍은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행하였고, 사진 속의 주인공은 결국 奶茶妹라는 인터넷 스타가 되었다.

65) 袁建胜, 앞의 글, p. 34 참조.

본가로서 그녀는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발휘했던 것이다.

둘째, ‘판관反串’을 통해 일상 속에 존재하는 젠더 역할을 해체하는데 기여했다. ‘판관’이란 원래 중국 고전극 등에서 누군가가 본래의 성별과 다른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전극에서 판관을 위해 화려한 분장과 복식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Papi醬은 아무런 남성적/여성적 표지 없이 자유롭게 성별을 오간다. 사이버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사이보그로서, 흰색 옷을 입고 남성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 순간에 검은 옷을 입고 여성 역할을 수행한다. 남성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여성일 때와 똑같은 변조음과 똑같은 리듬을 사용하는데, 이는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 어떤 표지(남성 흉내를 내기 위해 낮은 목소리를 사용한다거나 콧수염을 다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데 일조한다.

더 나아가 언뜻 성별과 무관해 보이는 경우에도, 이런 판관이나 1인 다역은 기존의 가부장적 언어를 조롱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파 선생님의 건강 강좌 (pa大夫养生大讲堂)〉<sup>66)</sup>에서 Papi醬은 흰 가운을 입고 의사의 역할을 맡아 ‘명절 후 증후군(节后综合症)’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엄숙한 의학 담론이어야 할 이 강좌는 시답잖은 농담이 된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사람은 화요일에 이미 금요일이 온 것처럼 느끼는 ‘시공착란’ 증상을 보인다는 식이다. 여기서 과학적이고 엄숙해야 할 의학적 용어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Papi醬의 모습과 목소리와 엉터리 어휘를 통해 희화화되고 해체된다.

셋째, 상냥하거나 여성스럽지 않은 여성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Papi醬은 남성에게 인정받거나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성이 그저 솔직한 자신의 모습과 진솔한 욕구를

66) <https://www.youtube.com/watch?v=ikuzzOzYRJ8>



내뱉기만 하여도 멋지고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심지어는 욕설을 하는 등 대단히 과격한 언행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 역시 여성도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솔직한 여성의 모습이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판매하여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오히려 그 외모를 농담거리로 치부해 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과 경제적 성공을 거머쥐었다는 점은 중국의 페미니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 시기 젠더를 상실했던 중국 여성들은 개혁개방 시기에 현대적 젠더 역할을 모색하였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환영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겠다.

다만 Papi醬의 활약이 페미니즘의 보급과 젠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진화된 성차별로써 진정한 여성 해방에 방해가 되었는지는 선불리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래에서 인터넷 스타로서 Papi醬이 가부장적 질서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한다.

## V. ‘위반’과 ‘융합’: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권력과 자본의 길들이기

지금까지는 Papi醬이라는 가상의 존재와 그 활동을 페미니즘이라는 시각에서 관찰하여 그 의미를 밝혔다. 여러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api醬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여성 형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남성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가부장적 젠더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구와 개성을 과감하게 선언한 그녀의 행동은

분명 중국 페미니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성평등이 도래하기 전까지, 페미니즘은 언제나 기존의 젠더 질서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도전은 기존 질서를 위반하기 마련이고, 이런 ‘위반’이 어떤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정받는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수적이다.<sup>67)</sup> 대중은 신선한 자극을 원하지만, 그 자극이 현실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규범을 ‘위반’하는 존재를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융합’”을 통해 일종의 해피엔딩을 추구한다.<sup>68)</sup>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Papi醬의 수용 과정 역시 바로 이러한 ‘위반-융합’의 모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2016년 4월 18일,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하 광전총국)’에서 Papi醬에게 동영상상을 내리고 수정할 것을 지시한다. ‘거친 어휘와 저속한 내용’, 즉 욕설과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Papi醬은 지시를 받아들여 즉시 동영상상을 수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여러분의 감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고,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정리 요구에 결연히 응할 것이며, 주류 가치관을 전달하고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Papi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sup>69)</sup>

67) ‘위반’과 ‘융합’이라는 용어는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융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집(2014)의 글에서 빌려 왔다. 조현우는 한국 고전 여성영웅소설을 다룰 때 흔히 사용해 왔던 ‘저항 대 순응’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위반-융합-균열’의 역동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68) 위의 글, p. 224.

69)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http://www.bjnews.com.cn/ent/2016/04/19/400528.html> 등의 기사를 참조할 것.

당시에 이미 Papi醬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큰 논란이 되었다. 시나닷컴(新浪)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모아 기획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초점은 인터넷에서 욕설 등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데 모여졌다.<sup>70)</sup>

필자는 이 사건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려 한다. 당시 한 네티즌의 분석 결과, 실제로 Papi醬이 저속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조사 대상인 33편의 영상 중 21편에 저속한 어휘가 사용되었고, 이는 대략 1분에 0.85개 정도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이 네티즌은 계속해서 그녀의 특징은 “사람을 욕하면서도 저속한 어휘를 쓰지 않는다(骂人不带脏)”<sup>71)</sup>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2)</sup> 그녀가 사용하는 욕설이 일반 네티즌들에게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런 증거는 또 있는데, 杨时暘은 「Papi醬의 저속한 어휘는 정말 저속한가 (Papi醬的脏话真的脏吗)」라는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욕설을 내뱉는 중국 인터넷에서, Papi醬이 그리 심하지 않은 몇 마디 입버릇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sup>72)</sup> Papi醬이 사용했던 수준의 어휘는 실제로 중국 인터넷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Papi醬이 사회통념상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과격한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Papi醬에 대한 견제는 정상적

70) <http://news.sina.com.cn/pl/2016-04-21/doc-ixrpxvcy4259969.shtml>

71) ecmoban模板堂, 「良心统计: Papi醬到底爆过多少粗口」, 2016년 4월 19일, 웨이보 기고문. [http://weibo.com/p/1001603966024293707658?from=page\\_100606\\_profile&wvr=6&mod=wenzhangmod](http://weibo.com/p/1001603966024293707658?from=page_100606_profile&wvr=6&mod=wenzhangmod)

72) <https://ent.sina.com.cn/zl/2016-04-19/zl-ixriqcx3048284.d.html?from=wap&HTTPS=1>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但没人能想到, 在一个所有人都随意泄愤骂街的中国互联网上, Papi醬会因为几句无伤大雅的口头禅而被教训。”

인 언어 순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적 국가권력이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저속한 어휘라고 느끼는 것, (Papi醬과 같이)과장되고 수다스러운 여성의 목소리를 저급하거나 천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성혐오 사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의 국가 권력기관의 남녀 성비다. 당시 광전총국 국장은 蔡赴朝으로 1951년생 한족 남성이다. 현재(2017년 4월) 광전총국에 있는 13명의 주요 간부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다. 범위를 더 넓혀 보자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2기 대표 중 여성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으며 중국 최고 권력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도 여성은 없다.

요컨대 Papi醬에 대한 광전총국의 견제는, 도발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성을 가부장적 국가(남성) 권력이 길들이는 과정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실제로 이런 길들이기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杨时旻은 Papi醬의 반응이 “마치 학생처럼 착해” 보였다고 말한다.<sup>73)</sup> 이후 Papi醬의 영상에서는 욕설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어졌으며 2016년 연말에 올린 〈연말특별편 (年末特別篇)〉<sup>74)</sup>의 경우는 ‘주류 가치관’에 부합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런 길들이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Papi醬은 이미 개인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기업이 되어 버렸고, 그녀의 동영상 앞에는 광고가 삽입되기 시작하였다.<sup>75)</sup> 뉴발란스 등의 대기업에서는 그녀를 광고 모델로 채용했고, Papi醬은 광고 내에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을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는 젊은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였다.

73) 위 기사.

74) <https://www.youtube.com/watch?v=53hzoZbafeg#t=174.4596905>

75) 재미있게도, 광고하고 있는 상품은 여성 미용용품의 상징인 마스크팩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욕설을 하거나 광고주의 눈 밖에 나는 일탈행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압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거세어질 것이다. 2017년 초, 그녀는 인터넷 스타 영향력 1위 자리를 내주었고, 대변에 「누가 Papi酱을 ‘죽였’는가? (谁“杀死了”Papi酱?)」<sup>76)</sup>라는 제목의 기사가 발표되었다. 때로 이런 경제적 압력과 가부장적 권력의 압력은 동시에 수행되기도 한다. 2016년 3월, 광고 경매가 이루어졌을 무렵 〈뤼 푹보는 어떻게 Papi酱 광고의 초야권을 천 만 위안에 팔아넘겼는가 罗胖凭什么把Papi酱广告初夜权卖到1000万?〉<sup>77)</sup>라는 제목의 글이 搜狐科技에 올라왔다. 여기서 뤼 푹보罗振宇는 당시 그녀와 계약을 맺고 있던 유명 남성 인터넷 스타이자 기업가인 罗振宇를 말한다. 이 글은 무의식중에 Papi酱을 남성에 의해 팔려 다니는, 심지어 성적인 자기 결정권도 없는 수동적 존재로 취급한다.

Papi酱은 기존의 가부장제와 억압적인 사회를 조롱하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였다. 그녀가 거둔 거대한 성공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페미니즘은 이미 그 임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위반이 위반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으며, 사회의 안녕을 위해 위반은 언젠가는 순치되어야 한다. 광전총국으로 대표되는 남성 미디어 권력에 의해 그녀의 위반은 한 차례 질서 속으로 봉합되었고, 정치경제학과 미디어의 성차별적 압력에 의해 그녀의 위반은 다시 한 번 자본과 시장 속으로 ‘봉합’되고 있다.

여기서 페미니즘의 운명론적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Papi酱의 등장이 여성의 진정한 해방과 양성평등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는 식의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따름이

76) [http://www.sohu.com/a/131697398\\_497336](http://www.sohu.com/a/131697398_497336)

77) <http://it.sohu.com/20160331/n442948207.shtml>

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기존 질서는 위반의 흔적을 봉합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봉합은 원래 상태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봉합도 균열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를 통해 젠더 이분법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sup>78)</sup> 아무리 성공적으로 길들여진다 하더라도 Papi醬이라는 사태는 이미 일어났으며, 그녀를 길들이고 봉합하려는 노력은 벌써 수많은 ‘균열’을 낳고 있다.

## VI. 결론

지금까지 Papi醬이라는 인터넷 스타의 등장과 그 의미를 주로 페미니즘 및 사이버 페미니즘과의 관련 하에서 논하였다. Papi醬은 일종의 풀뿌리 페미니스트로, 예전의 지식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종의 지식을 실천해 내고 또한 광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쩌면 Papi醬은 새디 플랜트가 누구인지, 다나 해러웨이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으며,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여기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현대 중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각종 억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어떤 페미니즘 이론가의 저작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토머스 맥러플린은 학술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문화에 대해 근본적이고 복잡한 질문을 던질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팬들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보수 운동가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광고 전문가들은 광고에 대해서 스스로의 지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를 ‘토착

---

78) 조현우, 앞의 글, p. 225.

이론vernacular theory'이라고 불렀다.<sup>79)</sup> 이런 의미에서 Papi醬을 페미니즘 영역에서의 토착 이론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여성주의를 깊이 연구한 학술 엘리트는 아닐지라도, 그녀는 생활 속에서 여성으로서 실질적인 문제들과 치열하게 맞닥뜨려야만 했고, 그것을 스스로의 언어와 영상을 통해 다룰 줄 안다.

그녀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들, 그리고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Papi醬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본인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둔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되었다. Papi醬의 위반이 사회로 통합되어 순치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몇 년 후에 그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한 명의 인터넷 스타로 남게 될 지도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존재로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어떤 균열의 흔적, 즉 변화와 해방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

79) 토머스 맥러플린 지음, 최재용 옮김, 『거리의 지혜와 비판이론』 (비즈앤비즈, 2012), pp. 13-14.

## 참고문헌

- 권김현영 등. 『대한민국 넷페미史』(나무연필, 2017).
- 김형란. “样板戏의 ‘그녀들’, 그리고 중국의 페미니즘”. 『중국현대문학』. 70호 (2014).
- 다나 J. 해러웨이 지음. 민경숙 옮김. 『겸손한 목격자』(갈무리, 2007).
- 레베카 솔닛 지음. 김명남 옮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창비, 2015).
- 수전 J. 더글러스 지음. 이은경 옮김. 『배드 걸 굿 걸』(글항아리, 2010).
- 아일린 미헨 등 엮음. 김선남 등 옮김. 『섹스와 돈: 페미니즘과 정치경제학 그리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알렉스 갤러웨이. “사이버 페미니즘에 관한 한 보고 : 새디 플랜트와 VNS 매트릭스의 관계”. 『문화과학』. 27호(2001).
- 이영구. “20세기 중국 페미니즘 문학의 섹스와 젠더”. 『세계문학비교연구』. 6권 0호(2002)
- 이채리. “사이버 공간의 페미니즘적 의미”. 『과학철학』. 10호(2007).
- 일본 중국여성사연구회 지음. 이양자 등 옮김. 『사료로 보는 중국여성사 100년』(한울, 2010).
- 전경란.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지식과 지식 생산의 의미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2014).
-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붕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집(2014).
- 진남·김창경. “인터넷스타 현상을 통한 중국 인터넷 문화연구 - 네티즌의 논평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1집(2009).
- 토머스 맥리플린 지음. 최재용 옮김. 『거리의 지혜와 비판이론』(비즈앤비즈, 2012).
- 欧阳友权. 『网络文学发展史』(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8).



都岚岚, “简论赛博女性主义”, 『世界文学评论』, 1期(2008).

孟繁华, 『中国当代文学通论』(辽宁人民出版社, 2009).

袁建胜, 「从“轻舞飞扬”到“神仙妹妹”:中国网络文化发展第一个十年中的女性形象塑造」(厦门大学 碩士學位論文, 2007).

The discourse of Chinese cyber feminism in the  
era of internet celebrity 3.0  
- the case of PapiJiang

Choi Jae Yong(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will analyse a famous Chinese internet celebrity, 'PapiJiang', arguing that she could be placed in the history of Chinese cyber feminism. The internet provided women a whole new space where they could conduct various experiences, and many cyber feminists like D. Haraway or S. Plant articulated some theories about feminism in this cyberspace. PapiJiang can be regarded a significant example of these theories, although not a perfect one.

In many short videos she created, she spoke out for many women suffering social, sexual, gender pressure, in a humorous way. But in some others, she also fixated gender role by showing various stereotypes of women, and sometimes even showed signs of 'enlightened sexism'.

Nevertheless, she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yber feminism.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she could be able to keep up with her cyber feminist activity, as the suppression from the patriarchal forces like government and market grows stronger.

key Words

internet celebrity, papijiang, cyber feminism, 'enlightened sexism', D.

Haraway, S. Plant